

14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변화(고후5:17)

서론 - 참 행복과 평안이 없는 인간

1)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찾지 못하고 헛된 수고만 가득하다.

전2:22~23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 큰 실패를 겪고 인생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고백

2) 인간이 행복과 평안을 찾지 못하는 근본 이유

인간은 범죄한 결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되고 단절되어 영적 사망의 상태, 영적 무능력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 죄로 인해 죽음의 상태가 된 인간은 본질상 진노를 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참된 평안과 안식, 행복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엡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본론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해방이 되어 참된 자유를 얻었다.

1)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롬6:17-18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 죄로 인해 주어진 사망의 법에서 또한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롬8:2b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히2:15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3)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골2:14~15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2.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1) 죄와 사망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사는 자이다.

갈2:20a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

2) 땅의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자이다.

골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받는 자이다.

요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3.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다.

1) 이제 후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

벧전4: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2)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과 현장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빌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잠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3) 문제가 왔을 때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된다.

빌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이미 주셨다.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만드셨다.

이 신분과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2)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을 얻으라.

요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삶에는 그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발견해 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이러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누리도록 하자.